

4 장 하느님: 실재의 심장(God: The Heart of Reality)

A. 주제(Thesis)

하느님은 “the More”의 존재이지만, 세상 안에, 세상과 함께, 그리고 세상 아래에서(in, with, and under) 세상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며, 인격을 초월하는 존재로서(transpersonal), 관계와 변화의 하느님(God of relationship and transformation)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God of love and justice)이다.

B. 문제점(Problems)

• Earlier paradigm -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 & 율법의 하느님(God of law)

: 하느님의 실재와 세상과의 관계를 왜곡하며(세상 밖, 우리와 떨어진 먼 곳에 계시다 - up there or out there), 우리에게 최후 심판, 위협, 염려의 메시지를 준다(불순종과 형벌, 희생과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 및 구원 /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 Emerging paradigm - 범재신론(Panentheism) & 사랑, 정의, 관계, 변화의 하느님(God of grace)

: 하느님을 encompassing spirit 으로서 우리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며,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으로 이해한다. 또한 사랑, 정의, 관계, 변화의 하느님은 지금 이 곳에서(here and now)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신다.

C. 논점(Argumentation)

1.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은 지난 수백년 간 서구 기독교를 지배하던 개념이며, 하느님의 실재를 왜곡하였다. 근대 이전에 “up there” or “out there”의 의미는 → Universe as small
- 범재신론(Panentheism)은 200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대의 개념이 아니라 매우 고대적, 전통적 개념이다. God is “the More” who is “right here.” 하느님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이 곳 여기 우리 주위에 있으며, 개입(intervention)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호작용(interaction)하시는 분이다.

2. 하느님은 인격적인가?

- 하느님을 personal 과 impersonal 을 넘어, 인격을 초월하는 존재(transpersonal)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t means ‘more than personal,’ not ‘less than personal’” (73).

3. 하느님의 성격은?

- 율법의 하느님에서 사랑, 정의, 관계, 변화의 하느님으로…
- : 사후의 세계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즉, 기독교인의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느님을 믿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 관계 안에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D. 평가(Critique) 및 생각해 보기

- 기독교의 심장에는 하느님이 있으며, 하느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성격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